

격려사

오늘 이렇게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자리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종성 목사님,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근상 주교님과 자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SK텔레콤 정만원 사장님과 임직원,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**오늘날 우리사회는 행복의 근원이
오직 물질에만 있는 듯 주변사람들이
어떤 피해와 고통을 받아도 ‘나’만
잘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물질
앞에서는 가치와 양심, 이웃이 버려지는
냉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.**

**우리의 생활수준은 나아졌다고 하지만
과거에 비해 불안과 원망은 높아지고,
이웃간에 오가는 정은 줄고, 어려운
처지에 있는 이들을 매몰차게 외면하는
등 우리사회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
지고 있습니다.**

이런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또한 매사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많으나, 모든 생명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

이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,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, 나만의 행복이 아닌,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.

부처님께서서는 불행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좇는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. 행복한 삶이란 내 것을 아무 분별없이 나누어 주고, 나 이외의 것에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

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 행복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자유와 복덕을 얻는 길이며 사랑이며 화합인 것입니다.

나 자신이 먼저 주변의 이웃을 보듬는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.

**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
따뜻한 손길을 오롯이 받은 김장김치는
소외된 우리 이웃의 마음에 행복의
씨앗이 되어 줄 것입니다.**

**아무쪼록 이 행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고
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의
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를 아끼는
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**

**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먹거리
나누기운동협의회와 SK텔레콤 관계자
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
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, 오늘**

**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
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**

**불기 2554년 11월 12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